

U대회 선수촌 '지역업체 참여' 논란

광주시의회 참여축구 결의안 채택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은 "현대 시공"

광주시의회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시공과 관련해 지역업체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선수촌이 조성될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U대회 선수촌 건설공사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공동도급 참여를

을 49% 이상 보장해야 하고, 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의 상생 협력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하도급 업체 참여비율도 60% 이상 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건설경기 침체와 발주 물량 감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등 지방건설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

건축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한 것은, 국내 도급순위 1위인 현대건설이 자체 브랜드(힐스테이트)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해줄기를 희망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이어 "시의회는 '지역업체 참여 권고 결의안'으로 인해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철회하거나, 컨소시엄이 구성돼 재건축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수촌 재건축이 취소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광주시의회와 재건축조합장, 집행부가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 또는 변경해야 하는데 지방 업체와 컨소시엄에 동의하는 조합원이 누가 있겠느냐"며 "특히, 컨소시엄 참여업체로 지방업체도 아닌 특정회사가 자주 거론되는 데 대해 조합원들은 의구심이 있다"라며 이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다.

이들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건립이 좌초되지 않도록 시의회는 지역업체 참여 권고 결의안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길 바란다"며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의회가 도와주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 마련된 '전남도 F1대회 이동홍보관'을 방문해 F1티켓을 즉석 구매한 후 박준영 전남지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F1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경기도 국제대회 힘 모은다

F1·여수박람회·보트대회 등 협력 강화

김문수지사 F1 티켓 구입·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도

전남도와 경기도가 F1대회와 국제 보트대회 등 스포츠레저 국제대회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경기지역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20일 경기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1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D-100일 기념식'에 참석, 전남-경기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양 지사는 전남도의 F1대회, 여수세계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과 경기도의 국제보트쇼, 세

계유기농대회 등에서 서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는 앞으로 F1대회 지원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공무원들도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전남도는 경기 국제보트쇼에 관련 업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친환경농업 육성·발전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협약식을 마친 후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전남도 F1대회 이동홍보관'

을 찾아 10월 열리는 F1대회의 관람 티켓(메인그랜드스탠드)을 즉석에서 구매했다. 김 지사는 "F1대회는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모터스포츠 축제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경기도의 협력 표명으로 F1대회의 전국화가 시작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모터스포츠 마니아가 많이 있는 경기도의 F1 대회 지원에 대해 성공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 기자 dok2000@kwangju.co.kr

U대회 수영장 입지 정치싸움 될라

수완지구 추진위 시장 면담서 '원안 건립' 주장 강시장 "용역결과 토대 공청회 거쳐 합의 도출"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경기시설인 수영장 유치 경쟁에 주민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영장 유치 경쟁이 정치권 다툼으로 번지면서 자칫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영장 원안 건립 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U대회 수영장 건립 입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추진위 소속 주민들은 "광주시가 U대회 경기시설인 수영장장과 체육관을 각각 광산구 수완동과 신촌동 일원에

건립하기로 내부적인 절차를 진행해 오다 지난해 강 시장 취임 이후 방향을 급선회했다"며 "원안대로 수완구 재수영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광주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전민 시장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합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시장은 또 "광주 남구 쪽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

도 있었다"며 "U대회에 대비해 신축해야 할 경기장 시설 2곳 모두를 광산구에 건립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상 부담스러운 일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광산지역 출신인 김민준(민·광산 4) 의원과 송경중(민·광산 3) 의원은 각각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과 보도자료를 통해 수완 수영장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애초 계획대로 U대회 수영장은 광산구에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 남구청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구에 U대회 선수촌, 북구에 야구장, 동구에 광주FC 축구구원장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수영장장과 체육관을 분산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뉴스 브리핑

강운태 시장, 반기문총장 연임 환영 성명

강운태 광주시장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연임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20일 반기문 UN사무총장 연임 확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인권과 평화를 비롯해 전 지구적 관심분야에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 온 개인의 탁월한 외교력과 성과를 세계 192개 회원국이 신뢰해 준 쾌거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온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시킨 자랑스런 일"이라고 축하했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시민은 UN과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 실현에 함께하고 있음을 주목한다"며 "최근 UN산하 유네스코가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광주와 대한민국의 명예를 선양해준 데 대해서도 깊은 신뢰를 보낸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행안부, 광주 4개 자치구간 조정 대통령령 추진

행정안전부는 20일 광주시 동구 등 4개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경계 변경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 산수동 일부와 무등경기장 주변인 서구 관천동 일부가 북구로 편입되고 북구 풍향동과 두암동, 중흥동, 우산동 일부와 남구 방림동 일부는 동구로 들어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동림·운암동 일부는 서구로, 송원현동 등 서구 풍암동 일부는 남구로 된다. 행안부는 "같은 동이지만 대별로 분리돼있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많았으며 무등경기장은 2개 자치구에 걸쳐 있어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경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총인 관련 '협박 발언 논란'

광주시 간부, 시의원에 사과

광주시 흥진대 자치행정국장은 20일 시의원에 대한 '협박성 발언 논란'과 관련해 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사과했다. 흥 국장은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해촉과 관련해 흥진과 의원과 통화하면서 언성이 높아졌지만,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의원의 그러한 의도로 받아들였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FTA 피해품목 관련법 개정"

전남도, 관계부처에 건의

전남도는 20일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 피해 품목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 시행기간 연장,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문에서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보전직불제 개정안과 관련,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을 관세 철폐기간

(10~15년)을 고려해 15년간 지원하도록 했다. 또 피해품목의 시장가격이 3년간 평균 가격의 95% 이하로 하락시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도록 기준가격을 현실화하고 지급단가도 기준가격 이하 하락분의 95%를 지원하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달 16일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표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김지 기자 dok2000@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성일로점(법률공인) 성일로 1구 22276-057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023477-5110 종로2기점(금강제약) 02733-0220 송파점(선릉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성점(구 시민회관) 030421-2288 부평점(부평역) 032617-5110 수원점(남문) 0310246-5110 의정부점(보신보터) 031821-6655 안양점(백산소방2001)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032039-4400 부산 시면점(시면로터) 051818-8800 서면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국점) 051256-7200 울산 울산점(광림로터) 0520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국점) 0551745-9870 창원점(한양병원) 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삼척점(삼척네거리) 053426-1511 남양주점(아라미아국점) 053425-7575 경북 포항점(국가리) 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 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 도동) 062225-5110 광주점(백동광) 062061-4477 전남 순천점(중앙시장) 061532-5110 구미점(구미역) 061532-5110 구미점(구미역) 061532-5110 대전점(대전역) 042254-5110 대전점(충훈로터)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042255-4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041553-2888 광주점(광주사거리)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천안로) 043222-1177-8 충주점(삼천로터) 043852-1414 강원점(원주2가리) 033641-0588 춘천점(철도광장) 033263-5110 제주 제주점(영동로터) 064753-4356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통 CE마크 인증, GMP 의료용기 제조업체

■ 광주 구도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백운동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1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1752-8845